

월간 月刊 刊

강민형 Min-hyung Kang
국동완 Dongwan Kook
권태현 Taehyun Kwon
김익현 Ikhyun Gim
우춘희 Choon Hee Woo
허연화 Yeonhwa Hur

이 미 공

이동하는 세계: 단축과 연장
World on the Move:
Shortened vs. Extended

대안적 성격의 공공 기관으로 예술인 지원 및 전시·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인미공은 2020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과거를 복기, 기념했던 해는 바뀌어 이제 2021년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미공의 20년 중 지난 1년간 전에 겪어본 적 없는 질병이 세계를 뒤덮었고, 빠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 또한 180도 바뀌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경계(境界)가 강화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무한한 세계가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체들은 그것의 진실을 탐구하는 대신 이미지의 조각을 모으고 연결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생산하는데 협조합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과 그 방향에 대한 기대가 '미래'로 정의되며, 사회는 새로움을 강조하고 선점하는 전략을 구성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쇄도하는 정보량은 마치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경계(境界)가 유연하고 허물어진 듯 보이게 하지만, 필터를 걷어 오프라인의 풍경을 관찰해보면 실상 그 어느 때보다 '내 것'과 '네 것'의 경계(境界)는 완강하기만 합니다. 이동 제한으로 인한 지역 붕괴와 소멸 위험, 양극화, 혐오, 차별 등의 심각성은 명확한 정의나 대책 없이 가려진 채 그저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공성, 담론 형성을 강조하고 급진적 프로

젝트를 이어왔던 인미공은 계속되는 뉴노멀의 불분명함과 불투명함 사이에서 다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고민합니다.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인미공 2층을 활용하여, 가변적이고 느슨한 장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획된 『월간 인미공』은, 인미공의 과거 활동에서 얻은 키워드들과 몇 개의 문제적 주제를 잇대어 인미공 2층에 늘어놓습니다. 즉 팬데믹 이후의 이동/이주의 변화, '내' 공간을 지키는 일의 어려움, 지역/계층간 경계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존재 등 오늘날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의 단면을 고찰해봅니다.

『월간 인미공』은 인미공의 시각예술 연구-기획-발화의 역할을 재고하는 성글고 열린 테스트 베드로, 3개월 동안 매월의 주제와 창작자들의 결과물을 연결하고 충돌시키며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는 인미공 홈페이지(www.arko.or.kr/insa/)와 인미공 2층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월간 인미공』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으로 점철된 오늘/미래를 매듭짓거나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시대를 지켜본 창작자들의 언어가 생산되고 파생, 확장되는 과정을 추동하여 인미공의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이 글을 어디서 어떻게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당신이 편한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보고 계시겠지요.

혹은 인미공 2층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곳까지 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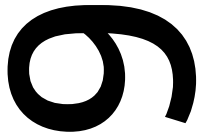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 혹은 택시를 타셨거나 걸어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혹은 직접 운전했거나 자전거,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셨을 지도요.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 여기 인미공 2층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와 서비스 운영자들, 연결된 기기와 장치들이 서로의 먼 거리를 단축시켜주고 있네요.

『월간 인미공』의 마지막인 9월호는 이동을 주제로 합니다. 살면서 ‘이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 싶어요. 팬데믹 이후 #stayathome은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니라 명령이자 규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제한한다’는 문장은 필히 여러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 어리(John Urry)가




박준영, 「재외 한인
이주 사회 여성 주체
의 등장: 인도네시아
한인 여성 활동가
모빌리티 차별, 네트워
크 자본 배제 극복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0권 제2호
(2020), p. 110.




이동한다는 것은 사물과 사람에게 일종의 자산이라 말
했듯이, 이동권은 인간의 삶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이를 제한하면서, 사회 구조를 받치던
구성(원)들은 조금씩 감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운송 및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사라지다시피 줄어들면
서 관련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이에 마치
도미노의 패들이 무너지듯, 관련되어있는 모든 구조들이
견잡을 수 없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간인미공』 7, 8
월호의 주제와 연결하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중된 이동에의 혼란은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내 신체가 직접 이동 할 수 없기에 안전
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멀리-개인의 이동 방
식을 확장할 방법을 찾기. 그렇게 신체와 사물을 주문
대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관련 기업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모빌리티는 더 이
상 탈것이 아닌, 이동과 연결된 모든 것과 결합하여 작
동하고 정의됩니다. 탈것에서 서비스로, 라고 누군가
는 말하더군요. 스마트폰 몇 번 두드리면 원하는 대부
분의 서비스들을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편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처럼요.


인간과 사물은 이동을 통해 집단을 만들고 교류
하며, 그를 통한 정보의 순환은 네트워크 자본을 만들
게 됩니다. 결국 제한된 이동으로 인해 얼마만큼 안전
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질문과 가능성은


새로운 자본/서비스 창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하지 못해, 정보의 밖으로 밀려난 구성원들에게 이는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신희, 「모빌리티스 (Mobilities)와 사회적 배제 간의 연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p. 79, p. 87.

나와 타인의 이동, 노동, 움직임의 감각과 인상에 무지해지는 오늘 『월간 인미공』 9월호는 두 개의 관점을 제안합니다. 제한된 이동과 움직임 그리고 이를 지각하는/지각하지 못하는 신체입니다. 인미공 2층에서 아마 당신은 이미지를 보는 행위가 꽤 불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동선과 이동을 방해하는 조각들, 땅에서 멀어지면서 체감되지 않는 현실의 속도와 감각에 대한 영상, 택배 노동자가 보내는 서비스의 결과이자 이동을 증명하는 사진, 집에 머무르라는 명령에서 시작된 드로잉. 더불어 발이 묶인 이주노동자들이 안팎으로 한국의 농업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모호해진 이주의 경계를 다룬 텍스트들. 이들이 인미공 2층에서 만들어내는 흐름에 당신의 움직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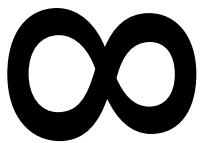
지난 3개월간의 거칠고 뻑뻑했던 『월간 인미공』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기사의 구절이 기억나요. 코로나 19는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드러내었다고.  『월간 인미공』도 새로운 플랫폼 혹은 대안과 시각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당최 무엇이고, 그들이 팬데믹 이후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조금씩 파헤쳐보고 싶었

 박주연, '코로나19는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드러냈다' (일다, 2020.05.20.)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8735§ion=sc1§ion2= (2021년 8월 26일 접속).

던 것 같아요. 지역 소멸, 경계(儆戒), 이주와 거주, 그리고 속도의 의미까지.

말이 길어졌네요. 이제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야겠군요. 신체와 한 몸이 된 각종 디바이스들과 함께 이동하실 테지요. 온오프라인 곳곳을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이동의 방식과 범위가 과연 내 의지와 동일하긴 한 걸까요? 지도앱과 네비게이션이 안내하고, 어떤 모빌리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소비량, 불편함과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나와 당신의 이동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게 불투명한 시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피주세요.



1

2

3

4

1

1

1

1

2

3

4

5

2

2

2

6

3

4

5

6



모두 다른 목적지

11

-김익현
(작가)

White Letters

24

-강민형
(바림 디렉터, 큐레이터,
통번역가)

국경 위의 삶: 코로나19와 이주농업노동자

33

-우춘희
(매사추세츠대 사회학
박사과정)

이주는 나의 힘

45

-권태현
(큐레이터)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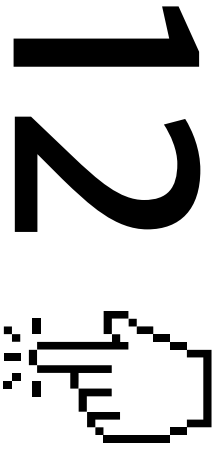
실재하는 것과 보이는 것,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차(視差, parallax)를 연구하고 사진과 글쓰기를 통해 추측한다. 그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진 세계와 해저 광케이블, 나노미터의 세계와 글로벌 터치서블 같은 것이 만드는 연결과 단절을 기억, 상상, 관찰한다.

11

개인전 《머리 비행》(경기도 미술관, 2020), 단체전 SeMA비엔날레 《내리 리키르르 하라라라》(서울시립미술관, 2016), 《A Snowflake》(국제갤러리, 2017) 등에 참여했다. 2018 서울사진축제 특별전 《Walking, Jumping, Speaking, Writing》(SeMA참고, 2018), 《더 스크랩》(2016~2019) 등 사진 전시와 이벤트를 기획/공동기획했다.

모두 다른 목적지

김익현 (작가)



<https://twitter.com/AirMobilityCmd/status/1427709857810030595?s=20>

2021년 8월 18일 오전 4시 12분 미 항공 기동 사령부는 8월 18일 카불 하미드 카르라자이 국제공항에서 C-17 글로브마스터 3 항공기(편명 REACJ871)에 탑승한 아프가니스탄 시민의 수는 64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탑승객은 최종 823명으로 정정되었다.

이 사진은 당초 Air Force amn/nco/snco 페이스 북 페이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공개되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졌다. 15일 카불 공항에서 찍은 수많은 비디

오 클립과 이 사진은 2021년 카불 철수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23일 오전 1시 한국 공군 C-170J 수송기 2대가 김해 기지에서 이륙해 23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새벽 7시에는 KC-330 다목적 수송기도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했다.

24일 새벽 C-170J 수송기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륙해 카불 하미드 카즈라이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24일 오전 2시 5분 아라비아해와 오만만을 거쳐 아라비아 반도로 진입한 항공기의 항로를 확인했다.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푸자이라 국제공항 남쪽 상공 17,900피트를 270노트(시속 500.04km/h)로 날고 있는 항공기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다. 이 항공기는 미 공군(US Air Force)소속의 록히드 AC-130W Stinger II로 부여된 편명은 RCH1014이다. 항공기의 항적은 오만만으로 그리고 아라비아해로 이어져 있다. 항적에 따르면 파키스탄령 과다르 국제공항 남서쪽에서 항공기는 우측으로 120도가량 회전했다. 항적은 북동쪽 아프가니스탄 레기스탄 사막을 지나 칸다하르 인근에서 끊어져 있다. 항공기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하미드 카즈라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수송기 중 한 대가 아니다. 이 항공기는 록히드 C-130 허큘러스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건십(Gunship)으로 8월 초 아프가니스탄군을 지원하기 위해 B-52 폭격기와 함께 재투입된 항공기 중 한 대다. 탈레반 무장 세력을 폭격해 포위된 아프가니스탄의 군대가 전선을 유지하도록 지원했지만, 8월 15일 카

불은 함락되었다. 24일 오전 한국 공군 C-170J 수송기는 26명의 사람을 태워 카불에서 이슬라마바드까지 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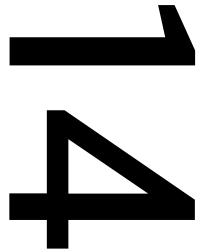
25일 365명이 카불 공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을 태우기 위해 이슬라마바드에서 대기 중이던 두 대의 C-170J 수송기는 카불 공항으로 비행했다. 190명, 175명이 분산 탑승한 두 대의 수송기는 카불 공항을 이륙해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착륙했다. 이들 중 378명을 태운 KC-330 수송기는 26일 새벽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륙했다. 이 항공기에 부여된 편명은 ARGO20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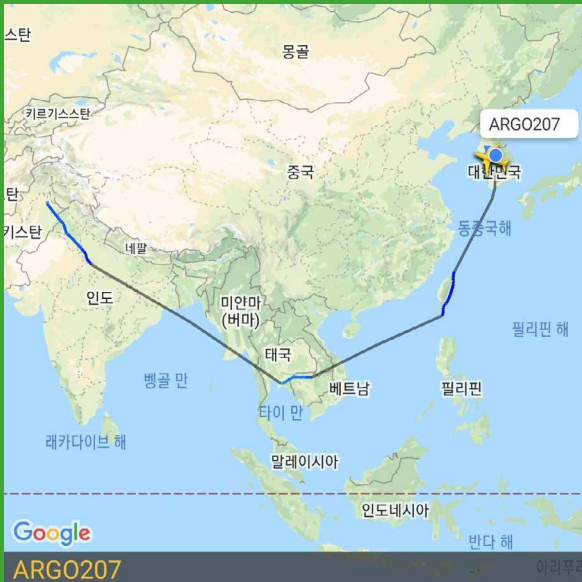
⇒ ARGO205는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한국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26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에서 “아프간 378명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난민보다 더 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통상적인 난민이 아닌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격을 부여했다.

26일 오후 6시 30분 카불 공항 예비 게이트와 공항에 인접한 바론 호텔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해 미군 병사 13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170여 명이 사망했다. IS 호라산(IS-K)은 테러를 본인들이 자행했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 바이든은 연설에서 “꼭 너희를 추적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공군 C-130J 수송기 두 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륙해 태국 라용 우파타오 국제공항에서 급유를 받아 8월 27일 각각 인천공항과



‘아르고(Argo)’는 벤 에플렉(Ben Affleck)이 제작/감독/주연을 맡은 영화로 1979년 테헤란 미 대사관 직원 억류 사건 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영화 제작자로 위장한 CIA 요원이 가짜 영화 ‘아르고’를 촬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미 대사관 직원을 구출한 작전을 다시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한 것이다.





김해 기지에 착륙했다. 이 두 수송기에 부여된 편명은 ARGO207, ARGO208 이었다.

미국은 28일과 29일 MQ-9 리퍼를 활용한 공습 작전을 실행했다. 미 국방부는 ‘첫 번째 공습으로 IS 고위 관계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습은 폭발물을 싣고 카불 공항으로 접근하는 차량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폭발로 어린이 8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29일 카불 공항 테러로 전사한 미군 13명의 유해를 실은 C-17 Globemaster III 수송기가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8월 30일 오후 11시 59분, 카불 국제공항에 주기된 C-17 수송기에 오른 미 육군 82 공수부대 사령관 크리스 도냐휴 소장을 나이트 비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끝으로 20년 전쟁은 공식적

으로 종료되었다. 공항 상공에선 MQ-9 리퍼, B-52 폭격기, AC-130 건십, F-15 전투기가 미군 800여 명을 태운 다섯 대의 C-17 수송기를 호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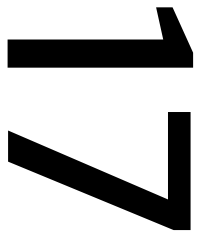
31일 매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브리핑에서 “8월 14일 이후, 미군 항공기로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79,000명 이상의 민간인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6,000명의 미국인과 73,500명 이상의 제3국 국민 및 아프간인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밤의 철수는 철수를 위한 군사 작전의 끝이자 2001년 9월 11일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작된 거의 20년간의 임무의 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31일 오전 7시 30분(KST) 탈출 엄호를 지원했던 AC-130W Stinger, E-11 A BACN, RC-135W Rivet Joint, B-52H Stratofortress 항공기는 아라비아해, 오만만 상공을 지나 아라비아반도로 진입했다.



<https://twitter.com/DeptofDefense/status/1432492782837501956?s=20>

8월 31일 카불 상공에서 포착된 MQ-9 리퍼.

<https://www.gettyimages.co.nz/detail/news-photo/drone-flies-over-the-airport-in-kabul-on-august-31-2021-the-news-photo/1234970499>



2017년 1월 17일 오전 2시 22분. “어제 오전 2시경부터 7시 정도까지 AC-130 항공기에 관해 찾아보았다.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대략 3시간 정도 보았는데 내가 주로 본 영상은 항공기 내부에 장착된 포나 커다란 포탄이 아닌, 폐쇄회로 화면이었다. 항공기의 동체에 달린 광학기기로 만들어진 가시광선, 적외선 영상을 통해 피/아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 식별, 발사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된다. 신기하게도 동물은 죽이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과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엄폐한 건물이 그 대상이다. 이는 상공에서의 관찰 결과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정찰, 탐지된 정보를 레이어로 겹쳤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 어제 새벽 유튜브에서 본 폐쇄회로 화면과 소리가 자꾸 떠오른다. AC-130 항공기 동체에 달린 광학기기를 통해 만들어진 기록영상. 그 화면 너머 지상에는 자신의 머리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인간이 있다. 죽은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

지 영원히 모를 것이고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았다면 자신의 삶과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원고 작성에 참고한 기사 및 웹페이지 목록은 아래와 같다.

WIKIPEDIA, '2021 evacuation from Afghanistan'

https://en.wikipedia.org/wiki/2021_evacuation_from_Afghanistan

WIKIPEDIA, 'Withdrawal of United States troops from Afghanistan(2020-2021)'

[https://en.wikipedia.org/wiki/Withdrawal_of_United_States_troops_from_Afghanistan_\(2020%E2%80%932021\)](https://en.wikipedia.org/wiki/Withdrawal_of_United_States_troops_from_Afghanistan_(2020%E2%80%932021))

WIKIPEDIA, 'Lockheed C-130 Hercules'

https://en.wikipedia.org/wiki/Lockheed_C-130_Hercules

WIKIPEDIA, 'Lockheed AC-130'

https://en.wikipedia.org/wiki/Lockheed_AC-130

Valerie Insinna, 'After Afghanistan evacuation mission, UK air force still not reexamining plans to retire C-130'(Defense News, 2021.08.31.)

<https://www.defensenews.com/air/2021/08/30/after-afghanistan-evacuation-mission-uk-air-force-still-not-reexamining-plans-to-retire-c-130/>

Jeff Schogol, 'The US is sending B-52s and AC-130 gunships back in Afghanistan to slow its impending collapse'(TASK&PURPOSE, 2021.08.10.)

<https://taskandpurpose.com/news/air-force-bombers-gunships-afghanistan-collapse/>

국방부 보도자료 '아프간 조력자 안전이송을 위한 '미라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2021.08.26.)

<https://www.mnd.go.kr/viewer/doc.html?f->

[n=news_20210826165112_upload_b136a45e_8fe3_46f0_9cf2_f38b5bbb80bc_00014434.hwp&rs=/mbshome/mbs/mnd/synapResult/202108/](https://www.mnd.go.kr/viewer/doc.html?f-n=news_20210826165112_upload_b136a45e_8fe3_46f0_9cf2_f38b5bbb80bc_00014434.hwp&rs=/mbshome/mbs/mnd/synapResult/202108/)

Jesse Hamilton, ‘US conducts several airstrikes in Afghanistan in effort to protect allies amid withdrawal’(The Print, 2021.08.08.)

<https://theprint.in/world/us-conducts-several-airstrikes-in-afghanistan-in-effort-to-protect-allies-amid-withdrawal/711300/>

Paul Iddon, ‘From Kobani To Kabul: Can U.S. Bombers Help Halt Taliban Advances In Afghanistan?’(Forbes, 2021.08.12.)

<https://www.forbes.com/sites/pauliddon/2021/08/12/from-kobani-to-kabul-can-us-bombers-halt-taliban-advances-in-afghanistan/?sh=43f742201d53>

Rachel Pannett, Ellen Francis, Susannah George, Miriam Berger and Paulina Villegas, ‘Last U.S. military flight leaves Kabul; Biden to address nation Tuesday’(The Washington Post, 2021.08.30.)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2021/08/30/afghanistan-kabul-taliban-live-updates/>

Dexter Filkins, ‘What We Left Behind in Afghanistan’(THE NEW YORKER, 2021. 08.30.)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21/08/30/what-we-left-behind-in-afghanistan>

Ali M Latifi, Joseph Stepanky, ‘After US withdrawal, few answers for Afghans left behind’(ALJAZEERA, 2021.08.31.)

<https://www.aljazeera.com/news/2021/8/31/after-us-withdrawal-few-answers-for-afghans-left-behind>

ALEXANDER WARD, 'Majority' of Afghan SIVs left behind, State Dept. official estimates(POLITICO, 2021.09.01.)

<https://www.politico.com/news/2021/09/01/afghanistan-sivs-left-behind-state-dept-508327>

이윤정, '미군, 폭탄 실은 IS 차량 드론 공습...공항 겨냥 로켓포 공격에 미 방어망 차단'(경향신문, 2021.08.30.)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8300731001#c2b>

조준혁, "아프간 특별기여자' 향한 망원 렌즈는 잘못됐다'(미디어 오늘, 2021.08.3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43>

양성희, '특별기여자와 난민 사이'(중앙일보, 2021.09.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3335>

조해람, 강한들, "난민'이면 안 받나요? ...국내 입국 아프간인 '특별기여자' 지정, 편견 조장 논란'(경향신문, 2021.08.29.)

<https://m.khan.co.kr/view.html?artid=202108291400001#c2b>

정은혜, "하늘서 사람 떨어져"...비행기 매달린 필사의 아프간 탈출[영상](중앙일보, 2021.08.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28878#home>

노광준, "황제의전' 논란 속에 빛난 어느 지역 언론인의 용기'(미디어오늘, 2021.08.3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57>

Philip Bump, 'Those six-figure Kabul evacuation numbers veil the limits of the U.S. response'(The Washington Post, 2021.08.30.)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1/08/30/us-afghanistan-evacuation-numbers/>

Tara Copp, 'Panic at Kabul Airport Imperils Evacuation Flights; At Least Two Afghans Dead'(Defense One, 2021.08.16.)

<https://www.defenseone.com/policy/2021/08/panic-kabul-airport-imperils-evacuation-flights-least-two-afghans-dead/184558/>

Jared Keller, 'The Pentagon reportedly used its missile full of swords to strike ISIS-K in retaliation for the Kabul airport attack'(TASK&PURPOSE, 2021.08.29.)

https://taskandpurpose.com/military-tech/r9x-hellfire-missile-isis-afghanistan/?fbclid=IwAR3zH74SBiQjZDurSA01LCL_bjECb3E8_gz7dJIU9na9gK7TNGWZh0s3fHI

Brian W. Everstine, 'Kabul Evacuation Flight Sets C-17 Record With 823 On Board'(AIR FORCE, 2021.08.20.)

<https://www.airforcemag.com/kabul-evacuation-flight-c-17-record/>

카불공항 폭탄테러로 최소 90명 사망... 미 '31일 시한 변동 없어'(BBC NEWS, 2021.08.27.)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352580>

Gordon Lubold, Warren P.Strobel, 'Secret U.S. Missile Aims to Kill Only Terrorists, Not Nearby Civilians'(THE WALL STREET JOURNAL, 2019.05.09.)

<https://www.wsj.com/articles/secret-u-s-missile-aims-to-kill->

only-terrorists-not-nearby-civilians-11557403411

Alia Chughtai, Mohammed Hussein, ‘Infographic: Tracking the flights out of Kabul’(ALJAZEERA, 2021.08.17.)

<https://www.aljazeera.com/news/2021/8/17/infographic-tracking-the-flights-out-of-kabul-interactive>

Reuters, ‘Leaving Afghanistan, US General's Ghostly Image Books Place in History’(Voice of America, 2021.08.31.)

<https://www.voanews.com/us-afghanistan-troop-withdrawal/leaving-afghanistan-us-generals-ghostly-image-books-place-history>

Patsy Widakuswara, Carla Babb, ‘Hunger Games’ Evacuations as US Left Afghanistan’(Voice of America, 2021.09.02.)

<https://www.voanews.com/us-afghanistan-troop-withdrawal/hunger-games-evacuations-us-left-afghanistan>

미 국무부 보도자료, ‘Joint Statement on Afghanistan Evacuation Travel Assurances’(2021.08.29.)

<https://www.state.gov/joint-statement-on-afghanistan-evacuation-travel-assurances/>


White Letters

큐레이터, 통번역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공간 바림(<https://barimart.wordpress.com/>)의 대표, 창작자 등 시각예술의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 중이며, 서울을 벗어난 탈중심화적 예술 실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지역성에 얽매이지 않는 예술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24

그 외에도 디지털 기술을 다루는 예술의 다른 형태를 고민하는 《DEGI-TAL》 전시 시리즈(degitalarts.xyz)를 기획했다.

강민형
(바림 디렉터,
큐레이터,
통번역가)



팬데믹이 선언(2020년 3월 11일)되기 직전인 2020년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예술 공간 **바림**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위치한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와 국제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에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림**의 디렉터이자 이 프로젝트의 공동 큐레이터인 저는 (또한 명의 공동 큐레이터는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의 디렉터 오다이 마미(Mami Odai)) 참여 작가 이수은 연출가와 함께 서울에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 변두리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작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의 중심인 서울을 의식하며 저는 몇 개의 글을 써오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석사 전공 당시 공부한 인터넷의 탈중심화 개념을 지역에 대입할 수 없는지, 지역의 위계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지방 특산물 같은 예술은 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가능한지, 광주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기개가 없는 것인지, 여러 비유를 써가며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공간은 이제 8년 차를 맞이하고, 9년 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본토의 식민지였고, 일본 또한 모든 것이 수도와 도심에 몰리고 있다는 점, 지역 작가를 육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가지고 오는 방식



바림 홈페이지:
<https://barimart.wordpress.com/>
 (2021년 8월 17일 접속).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s://tenjinyamastudio.jp/en/>
 (2021년 8월 17일 접속).

25

으로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공통
점으로부터 **바림**과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의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은 지점에
서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KTX나 비행기 향로처럼, 이
미 자본과 국가가 정한 길을 통해서만 물자와 인간이
이동하고, 그 매끈하게 닦인 길로만 예술 교류가 일어
난다는 점을 들며, 포장되지 않은 길을 가고, 그 길을 표
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외부인이 왔다가 잠시 ‘영감’
을 받고 사라지는 **아티스트-인-레지던시**는 오직 작가
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있던 저처럼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도 다른 길을 모색
하고 싶었습니다. 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그 길이 그대
로 철도가 되었고, 그 길 그대로 사람이 이동하여, 지금
의 도시 권력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농담도 주고받
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광주에서 삿포로로 이동
할때 비행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환경
오염에도 일조하지 않는 길이더라고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큐슈에 간다든지, 러시아로 돌아간다든지, 오토츠
크해를 다니는 페리를 검색해본다든지 하면서, 자연스
럽게 ‘이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하나의 스펙
이 되어버린 **아티스트-인-레지던시**는 어떤 특정 장
소(주로 새로운 장소)에 특정 기간 작가가 머물며 창작
을 하는 것인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동만 하다가 시
간을 다 소진하고, 정작 삿포로에 도착해서는 뜨거운

차나 차가운 맥주를 한잔 들이키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저와 오다이 디렉터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의 부분은 삭제된 채, 출발하기, 영감 얻기, 제작하기,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기(주로 다시 오지는 않는다)라는 일정의 레지던시 루틴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동하는 레지던시, 체류하지 않는 레지던시, 아니 더는 레지던시라고 부르기도 뭐한, 국제교류라고 하기도 뭐한 이상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먼 길을 돌아가는 이유로는 레지던시에 대한 반발심 같은 것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동을 주제로 하는 작가들과 함께 간다면 작업도 할 수 있고, 금상첨화였는데….

….

그러나, 아무튼 펜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는 WHO의 생방송을 보며, 급히 이런저런 준비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재기 줄에 30분을 서서 마스크를 산 뒤, 급하게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 타지 않기로 했는데…라고 머쓱해 하며.

이 프로젝트는 이후, 올해 초, 반재하, 정유진 작가가 합류하여 <프리레지던시, White Letters>➡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반재하 작가는 zoom의 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탈북 게임 시나리오를 선보였고, 정유진 작가는 거대한 물성을 지닌 본인의



바림 홈페이지 참조. <https://barimart.wordpress.com/2021/03/04/wlpresentation/> (2021년 8월 17일 접속).

작품을 블록체인의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 토크로 풀어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프리레지던시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곧 샷포로로 가기 위해 준비만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가는 것을 예상하는 '준비'였기 때문이었고, 물리적 교류가 멈춘 이 순간, 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편지(letters)였기 때문입니다. 하얗게 눈 덮인 샷포로에 도착하면, 눈처럼 사라지는 그런 편지.

©www.gutenberg.org/ebooks/ebooks60

MAIL TO:

여러 형태의 교류 방식이 실험되고 있지만, 배움과 탐구의미이득스튜디오는 2021년 실제 서로를 방문하는 것을 잠정적 목표로 하며 레지던시를 위한 pre-residency <White Letters>를 기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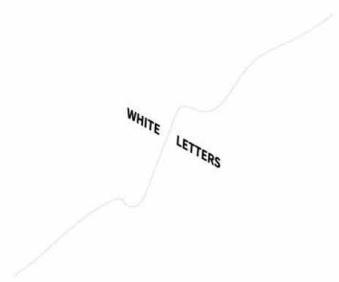
국경 봉쇄와 입국 금지의 현상에서 본래 계획했던 것처럼 서로 물리적으로 방문하는 레지던시를 운영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 사이 바림과 텐진이라는 서로에게 짧은 서신들을 보냈고, 더 많은 이야기가 예상에 닿기 했습니다. 이 리서치 프로젝트는 우리의 예술활동과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타래를 이어가고, 기존 작업을 확장해 리서치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 큐레이터, 작가와 진행중입니다.

While everyone is experimenting with various forms of artistic exchanges in the pandemic era, Barim and Tenjinjama Art Studio organized and curated White Letters. This pre-artist-in-residence project has a tentative goal of the artists visiting each other in 2021.

It is impossible to run a residency program and visit each other physically, given the border blockade situation. In the meantime, Barim and Tenjinjama have been sending short letters to each other, and more stories are still kept in our mailboxes. We talked about online residency, the fundamental purpose of residency, migration, political and social implications, power structure, the pandemic, and more. This research project looks for researchers, curators, and artists who would add their stories to our email threads while continuing their research and expanding their existing artworks.

様々な形の交流方式が実験されていますが、Barimと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は2021年、実際にお互いを訪問することを見据えて、pre-residency <White Letters>を企画しました。

国境封鎖と入国禁止の中、もともと計画していたお互いの現地を実際に訪問するレジデンスを運営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が、これまでの間、Barimと天神山は互いに短い手紙を送り、もっとたくさんのがメールで交わされてきました。今回の研究プロジェクトは、私たちのメールでやりとりした話を一緒に共有し、このやりとりを続けながら、既存の自分の研究を拡張してリサーチを進めたい研究者、キュレーター、アーティストといっしょにプロジェクトは進行中です。



SENT FROM:

©www.gutenberg.org/ebooks/ebooks64

国家機関によって都市は ー 特に文化において、光州と札幌において ー どの形付けられ、どう決めつけられるのか。今年の初め、札幌に滞在しながら、ユネスコ創造都市ネットワークのメディアアート部門に所属する札幌と光州における文化政策の歴史をリサーチした。本当、美える。行政が向く方向と市民の生き方が、その間でアーティストとアート機関は、公衆員のよう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果たしているのではないという疑問から始まったリサーチだった。それはアートシーンとアーティスト自身にどんな影響を及ぼすのかという疑問がまだ残っている。



Subject : Re: Re: Re: Re: 우리의 타래

중심과 그 밖
사람들이 움직이기 멈추었을 때 마침내 알게 되었다. 대도시는 현대적이고 끊임없는 인적 교류를 위한 도선에 비해 아무런 선이 걸쳐져 있지 않은 존재였을 뿐이었다는 것을 판매처에 폭탄처럼 바린 것 같다. 그라데이션(순환국립로 바림)의 짧은 부분의 중심이라고 모두가 믿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광주의 장의 도시 정책의 중심에는 '빛'이 있다고 들었다. 다양한 색상과 빛이 겹치면 원근감이 아닌 원근이 된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상포로의 겨울은 눈이 쌓여 빛이 어둡어진다. 도시가 겹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그려질 현대의 다음 세계는 과연 어떤 색이 될 것인가. 아아 한때도 진중하게 아닐 것이다.

中心とそれ以外
人の動きが止まった時、大都市は膨大で絶え間ない人の往来のために、その層が重なり合っただけで黒く塗りつぶされただけの存在だったとパンデミックが暴露してしまっただけで、グラデーション(Barim)の濃い部分が中心だと一瞬に思い込まれていただけでもあったような気がしている。光州の創造都市政策の手法は「光」だと聞いた。様々な色の光が重なり合うと黒じゃなく白になるという。同じように、札幌の冬は雪に覆われてホワイトアウトする。導線が重なり合わないよう慎重に描かれるであろうパンデミックの次の世界は果たして白色になるのだろうか。たぶん、白でもなく黒でもない。

Subject : Re: Re: Re: Re: 우리의 타래

사실 현대의 문제가 아닐지도. 나는 올해 2월 상포로에 갔고, 3월부터 영국 공기가 시작되었다. 국경은 여전히 봉쇄되어 있지만, '문화의 숲' 사랑의 불시착' 같은 국경을 넘었다. 오랫동안 '문화 교류'는 어떤 것이었을까. 세계는 하나라는 개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혹은 원래 없었던 것인가. 관할 이후 시대의 넘쳐나는 '문화 교류' 난리에 참가하고 싶지 않던 나도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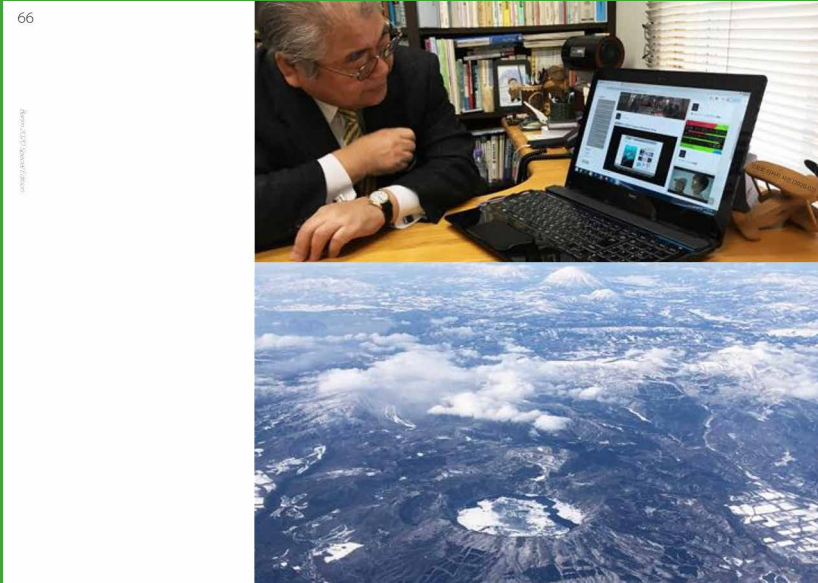
実はパンデミックじゃないかも。私は今年の2月に札幌にいて、3月から入国予定が始まりました。国境はまだ封鎖されているが、「あつまれ どうぶつの森」と「愛の不時着」だけは国境を超えていた。真の「文化交流」というのはこういうことだったのかな。「世界は一つ」という概念はどこに消えたのか、もしくはそもそも無かったのか。日韓友好時代、ありふれた「日韓交流」の競争に参加なんてしたくなかった私も、今になってはそれがあったらどう考えてしまう。



当迄至产卵年齢時、他们将告别其他群鱼群朝日本出发。

28

바림은 안전을 이유로 당분간 온/오프라인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는 지금도 영국과 미국/베트남 작가와 함께 온라인 레지던시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큐레이토리얼 어드바이저(curatorial advisor)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온라인 레지던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레지던시라는 개념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레지던시가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건 제게 의미가 없었고 도리어 다른 대륙에 사는 작가가 직접 오지 못하면서 샤프로에 무에서 유의 작업을 창작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세상에서 예술 창작 또한 그런 형식을 떨 수는 없을지, 오히려 물리적으로 제작하는 것과는 다른 작품이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제작 과정을 단순화시키면서 작가가 새롭게 발견하는 지점에 주목하고, 이동의 한계 즉 작가를 지원하는 기관 입장에서의 불편함을 그대로 매체화 할 수 없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결과물 자체에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각 스크린 안에서 레지던시가 아닌 형식으로 아바타 창작을 하는 것이 소위 레지던시에서 작가가 느끼고자 했던 ‘영감’이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시화되는 것은 국경입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기 전, 문화예술계는 ‘국경은 없다, 경계는 없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국제교류는 장려되어야 하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마땅하고, 예술가는 각종 해외 레지던시에 참여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솜씨와 재주를 뽐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국가주의가 박혀있지만, 문화와 예술만은 모든 경계를 넘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0

62
63

Subject: 우리의 타래

온라인 레지던시
우울한 미래 코주 생활을 하는 동안 일 시간 외에는 화면 도라다 라이드처럼 흐르고 있다. 상호로에 있는데 한국에 사는 것 같고, 남의 가이어나 케를의 존재 각형하면서 그 전체에 임의일비하고 있다. 배우처럼 지시문과 같은 존재임을 하거나 일종이나 가를을 말로 내뱉거나 하여 최근 나의 성격은 바뀌었다. 9월 이후 이후, 어떤 어떤 주제로 일종은 제지나에 유용지도, 온라인상에서 제지에 커뮤니케이션은 통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말로 해야 되나, 가장 큰 우리는 아티스트가 OFF를 누르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나는 항상 ON이어야 하는 것.

온라인·레지던시
この1月のリモートワーク生活で、仕事以外は録音ドラマやラジオのように流れている。机の上には画面で暮らしているようで、録音の言葉やカッパルに起こるトラブルを心配したり、仕事の間隔に一言一語している。そのせいでドラマの登場と似てくドラマのような生活をいうようになった。感情や気分を口に出したりと、最近の私は性格が変わった。あるある。これはリモートで行うものに慣れたことかもしれない。オンラインでは、実際に会うことで成した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通じない。すべてを言葉にしなければならぬから、最大の強みはアーティストにOFFしたら手も足も出ないということ。私も常ONでなければならぬ。

>>>Subject: Re: Re: 우리의 타래

레지던시라는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는 작가에게 말의 장 줄이려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로 확장, 변모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예술 향장은 예술가에게 이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용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레지던시의 의미는 무엇이 가능할까. 이제 더 넓게 더 깊게는 어떤 아티스트, 그레 그렇게 멋진 예술이 한가 이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레지던시와인스페이스를どう利用し、拡張できるのか?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스는、アーティストのキャリアの一行であり、また地域住民のための教育的な場であったりと、様々な形で広がりその姿を変えてきた。この数十年間、アーティストに移動することを求めてきたが、移動するということは簡単にしどろい移動は少く、何か意味があったのだとしたら、パンデミックの時代、何ができるのかな。もう終わったと言ってる訳ではないが、その時、あれも聞きたかったかも、という気がする。

>>>Subject: Re: Re: 우리의 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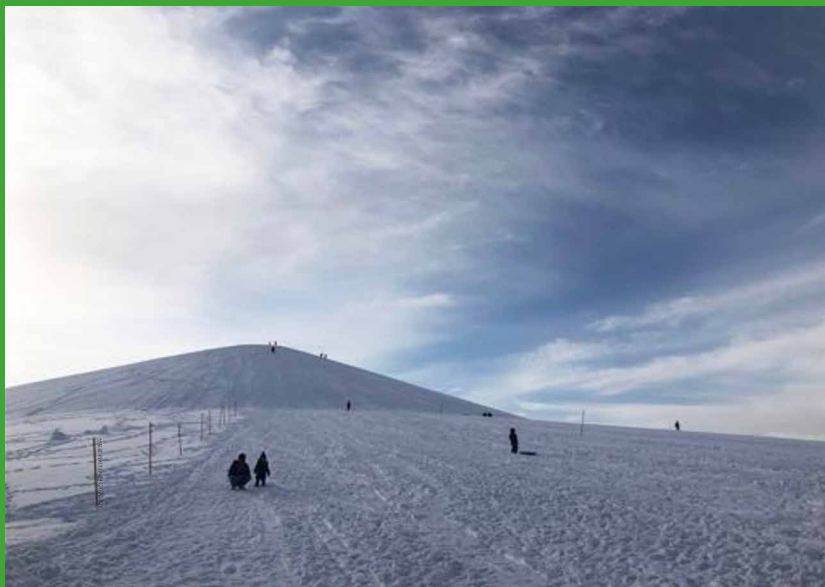
이동 중계할
일종은 교육 중계 이후 나는 상호로에서 한 방씩도 나가질 않았다. 2020년 3월까지는 어딘가 가아 작거나 조를을 받으면 일종은 조정하여 할종과 조를을 예약하고 그곳에 사는 친구에게 연락하고 아티스트 이동했다. 아무 데도 가지 않게 되자 지금까지 손질이 할지 않아 생각해왔던 것이 항상 일종이거 사되었다. 일종이 내 시간을 할종적으로 쓸 수 있게 할 것 같지만, 동시에 할종 일종일종,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갈 수도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할종 일종이 무거 되었다. 일종이내 확실히 기억이 나는 무거운 종.

移動感存せ
1月始めの芸術の出展以来、私は札幌から出ていない。2020年3月までは、どこかにこうと願えば、誰かから呼びかければ必ず仕事を手配して、フライトとホテルを手配して、現地の友達に連絡してどこにも移動した。どこにも行かなくて、これまで手が回らなくて出展もなかったことがほとんど片付いた。まあ、も自分の時間をクリエイティブに使えようになっという気持が少し分けた。そして同時に思っていることとれない。行くことのできない遠くのあるものへの興味の程度が高まっている。そのせいか夢をたくさん見るようになった。起きても見えないくらいいびりきりした夢。






그러나 팬데믹 이후, 예술가가 믿었던 ‘경계 없음’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허무할 정도로 사라졌고, 온라인 프로젝트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발이 묶인 채 자유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통해, 원래 국제교류를 통해 애초에 뭘 얻고 싶었던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임을 상기해보지만 막상 앞에 있는 것은 그사이 만료된 여권이었습니다.



삿포로에 가는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아서 바림과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는 종종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변수는 도쿄 올림픽 2020 이후의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경계를 뛰어넘자던, 식민주의를 벗어나자던 자유로운 예술가의 초상이 또 떠오릅니다. 실크로드를 누비며 지역민과 프로젝트를 하던 그 노마드적인 모습 말입니다. 온 세상이 멈추어도 이해관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은 세계의 평화

와 화합을 보여준다는 그 위상에 스스로 손상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가에 갇힌 예술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교류할 수 없다는 문제에 모두 공감하는지, 그렇다면 교류는 이동을 전제해야만 하는지, 그러한 질문들을 <White Letters>에 쏟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이주농업 노동자들과 미등록 노동자들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했으며 먹거리, 이주, 젠더에 관심이 있다. 2018년 사진전 《이주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을 열었다.

국경 위의 삶: 코로나19와 이주농업 노동자

33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고, 그 이야기의 힘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우춘희
(매사추세츠대
사회학
박사과정)

코로나19, 국경폐쇄, 미등록노동자: “캄보디아로 가는 비행기표가 취소되었어요.”

2020년 3월, 쿤티에(가명, 30대 여성)는 비자 만료를 앞두고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쿤티에는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를 받고 2015년도에 한국에 왔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매년 16개국에서 55,000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으로 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농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4년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쿤티에는 경상도의 한 깻잎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10시간 일을 하고, 한 달에 1~2일 쉬었습니다.

쿤티에는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캄보디아 출신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경상도 대도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쿤티에와 남편은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에 쿤티에는 한국에서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쿤티에는 한 달 된 아이를 안고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녀는 다시 한국에 와서 일을 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거나 잠정 봉쇄되었습니다. 쿤티에가 취업, 결혼, 아이의 양육을 위해 넘나들었던 국경이 봉쇄되면서 본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실 쿤티에는 캄보디아에 돌아가 한국어 시험을 본 뒤, 고용허가제로 한 번 더 한국에 입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쿤티에의 비자 만료일이 점점 다가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한국에 남아서 돈을 2~3년 더 벌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쿤티에는 하루아침에 합법체류 신분에서 미등록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소개로 한 깻잎 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주들은 보통 미등록체류자들에게는 합법체류 신분이라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최저 임금의 70%정도만 줍니다. 그러나 쿤티에는 자신이 4년 10개월 동안 일한 경력을 내세워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등록체류자가 된 후 쿤티에는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에게 잡힐까봐 외출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단속반원에게 잡힌 미등록체류자들은 보호소로 보내진 후 강제출국 당하기 때

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쿤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시장에 가서 한 달치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대신에 사업주에게 약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매일매일 깻잎 밭 일이 끝나면, 쿤티에는 걸어서 3분도 안 걸리는 집으로 바로 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그녀는 페이스북 영상통화로 아이를 돌보는 친정어머니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화면 너머 친정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말을 가르치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경남의 한 비닐하우스 깻잎 밭.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 놓아서 깻잎은 이를 낮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자란다.
©우천희



“이주노동자 받으려고 집도 다 지어봤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김미자(가명, 60대 여성)씨는 수확한 배추를 차곡차곡 담은 상자를 트럭에 마지막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이로써 배추농사는 끝이었습니다. 배추농사를 지으면서,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동네 아주머니와 할머

니에게 일당을 주며 바쁠 때 일을 도와달라고 했었습니다. ‘지팡이만 짚을 수 있는 할머니만 있으면 나와서 일을 할 정도로 바쁜’ 시기이지만, 이제는 농촌에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미자 씨는 일손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이주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2명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일 년 내내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몇 달씩 휴지기가 필요한 배추농사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미자 씨는 여름에는 노지에서,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일 년 내내 키울 수 있는 깻잎으로 작물을 바꾸었습니다. 노지의 여름 깨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김미자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깻잎은 실패율이 적은 작물인 대신에, 사람 손이 최고 많이 가는 작물이야. 사람 손에서 시작해서 사람 손으로 끝나거든. 인건비가 정말 많이 필요해, 깨가.” 노지에 심은 깨가 곧게 자라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만 입국하기로 한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일 년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김미자 씨는 하는 수 없이 주변 이주노동자들에게 미등록노동자라도 좋으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

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하게 되면, 외국인고용법 제 2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 관리법 제 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 받습니다. 또, 미등록체류자는 강제출국조치 당합니다. 옆 마을의 어떤 사업주는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해서 1명 당 벌금 200-250만원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 농사를 망칠까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미자 씨는 미등록노동자 2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농민들에게는 운이 좋게도 고용센터에서 빨리 사람을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오지 않은 이 시기에 사람을 구했다는 것은 미등록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두들 알았지만 쉬쉬 했습니다.

박수현(가명, 40대 남성)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수현 씨는 경상도 한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10년 넘게 지어왔습니다. 너도나도 산을 개간하고 사과나무를 심어 공급이 과잉돼 사과 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깻잎 농사로 작물을 바꾸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을 만들어 그 안에 깨를 심었고 캄보디아 노동자 3명을 고용할 생각에 천만원을 들여 비닐하우스 농막 안 샌드위치 패널로 집을 지었

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언제 입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수현 씨와 그의 노모가 깻잎 비닐하우스 여섯 동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인력사무소에 전화해 여성노동자 3명을 계속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박수현 씨는 “깻잎 농사는 인력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주변에 보니까 깻잎을 올해 많이 시작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농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주노동자 인력관리는 고용센터 담당이기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박수현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속으로 걸리면 내야 할 벌금도 걱정이지만 일 년 농사를 망치는 것이 더 걱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수현 씨가 안내한 비닐하우스 안에는 태국인 노동자 3명이 깻잎 포장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이즈나(가명, 20대 여성)가 잠시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태국에서 왔고, 한국에 온지 2년 넘었어요. 여기에서 돈 벌어서 가족에게 보내요. 우리 숙소엔 10명 넘게 사는데,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경기도의 한
쌈채소 밭. 두 달 전,
캄보디아에서
아이를 낳고
돌아온 이주여성
노동자가 밭에서
쌈채소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재배된 쌈채소는
서울로 배달되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온다.
©우춘희

코로나19 시대의 필수노동자인 이주농업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필요한 빈자리는 미등록노동자로 채워 집니다. 미등록이주민들의 체류자격이 ‘불법’이라는 테두리에 있지만, 사실 사람의 존재는 ‘불법’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이주기구(IOM)나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단체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 대신에,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의미로 ‘초과체류자’, 또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미등록체류자’, ‘미등록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권고합니다.

2020년 4월 초, 당시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평가 받았던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가 있는 열악한 숙소 환경,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나오는 화장실 때문에 애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이주노동자 숙소를 전체 격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4월 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에 체류하는 약 38만 명의 미등록이주민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낙인찍기만 한다면, 이들은 계속 숨게 될 것이고 방역의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이들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외국인’으로서 명명했고, 미등록이주민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미등록이주민들도 마스크를 구입하여 착용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필수 노동자’ 직업군을 범주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수노동자의 범주에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보건의료계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는 청소노동자, 택배 및 배달노동자,

⇒ ILO Policy Brief, 2020.4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protect/---protrav/--migrant/documents/publication/wcms_743268.pdf
 (2021년 8월 9일 접속).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는 돌봄노동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이주 농업노동자, 식품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또한 유입국에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필수 노동자’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유럽의 국경이 봉쇄되자, 유럽 국가들은 농업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밭을 동동 굴렀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미등록체류자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시는 미등록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농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곳에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진 다양성은 이 사회에 회복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미등록이주민 또한 코로나19 시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 구성원입니다.”



이주농업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달에 1-2일 휴가를 얻는다. 노동자 1명은 하루에 대략 15,000-17,000장의 깻잎을 따다. ©우춘희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미등록이주민들을 단속 및 추방하려는 시각과 정책이 있지만, 이들 또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시혜적인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더럽고 위험한 작업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품인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상당수의 미등록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적 자부심이 가득 담긴 김치는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등에서 온 노동자들의 손을 거쳐서 김치식품가공공장에서 만들어져 유통됩니다.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쌈채소, 배추, 깻잎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손을 거쳐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농촌에 가면 “이제 외국인 없이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의 식탁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이주노동자와 미등록노동자의 손에 의해서 차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 발표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에 보내는 돈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국경이 닫힌 그곳에서 코로나19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더 낮은 일자리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4차 대 유행이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는 코로나19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취약 계층과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인지, 이들에게 어떻게 안전망을 마련할 것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차 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다시 질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해질 때, 비로소 한국에 있는 구성원들 또한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글을 쓴다. 예술 바깥의 것들을 어떻게 예술 안쪽의 대상으로 사유할 수 있을지 탐구한다. 정치적인 것들 각각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에 무게를 두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권태현 (큐레이터)

이주는 나의 힘

45

최근에는 모빌리티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전시 《IGMO》(<https://igmo.app>, 2021)를 기획했고, <영주소장>(국립현대미술관, 2021) 등 미술관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미술세계』의 기자였고, 이미지연구공동체 ‘반짝’의 멤버이다.

바야흐로 모빌리티의 세계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 요즘, 학술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상업적 슬로건에서도 모빌리티라는 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빌리티 담론을 전유하려는 기업들은 마치 세계가 갑자기 새로운 모빌리티의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묘사하기도 한다. 물론 모빌리티 테크놀로지와 정보통신의 발달이 고도화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맥락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배달과 택배 시스템은 사물에 대한 감각 자체를 바꾸어 놓을 정도이고, 모빌리티 인프라의 발달로 시공간이 점점 압축되면서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관념이 피부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세계는 항상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이동에서부터 큰 흐름의 이주, 그리고 물질의 존재론적 차원까지 포함하여 세계는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다. 그렇기에 소위 모빌리티 전환이라고 불리는 경향은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움직이고 있던 세계를 다시 감각하는 문제이다. 멈춰있는 정주를 기본적인 것으로, 움직이는 이주를 예외적인 것으로 여겨온 것이 기존의 사유 방식이라면, 모빌리티 전환은 예외였던 이주를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보는 것이다.

이런 모빌리티 전환을 통해 어떤 사물을 고정된 대상으로 두고, 본질을 규명하려는 사유가 총체적으로 성찰되고 있다. 이제 사물은 분석을 기다리며 그 자리

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양자역학에서 다루어지듯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철학 담론에서는 모빌리티와 존재론을 두고 풍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관련하여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은 고전적인 서양철학을 움직임(철학자인 그는 모빌리티라는 말보다는 운동[movement], 움직이는[in motion], 동적인[kinetic]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낸다. 그는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Lucretius)가 기존 해석과 달리, 물질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물질의 능동성까지 사유해냈으며 루크레티우스의 고대원자론 철학에서 동시대적 통찰을 찾아낸다. 또한, 토마스 네일은 맑스(Karl Marx)의 에피쿠로스(Epicurus)에 대한 박사 논문을 다시 읽으며, 통속적인 맑스주의의 결정론적이고(역사는 공산주의를 향해간다.), 환원주의적이며(상부구조는 하부구조로 환원된다.), 인간중심주의적인(모든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나온다.) 한계들을 정확히 뒤집어 버리기도 한다. 동시대적 의미의 신유물론자로서의 맑스를 맑스의 텍스트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존재란 그 자체로 움직이고, 비본질적이며 비결정적이다. 반면에 정주의 관점에서 존재는 그것이 놓인 곳과 연동되어 결정되곤 한다. 즉 정주에서 존재는 공간화된다. 쉽게 국가라는

체제가 정체성과 연결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근대적 존재와 근대적 공간 구성, 나아가 배타성, 폐쇄성, 동일성(정체성)이 하나의 궤로 연결된다. 국민국가로 번역되곤 하는 네이션(nation)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토대 위에 있다. 문제는 지금의 논의에서 네이션이 모빌리티와 전지구화라는 맥락과 함께 뒤섞이며 복잡한 역학 속에 놓인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고도화된 모빌리티는 지구의 시공간을 압축하여 네이션의 탈영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영향 속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Antonio Negri & Michael Hardt)는 냉전 이후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국면을 ‘제국’(Empire)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 그들이 규정하는 제국은 과거 제국주의 시기와 전혀 다른 것으로, 네이션의 경계를 넘는 전지구 차원의 자본주의적 지배와 착취 구조를 말한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자본주의적 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네이션 개념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전지구화를 사유하는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질학적 규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논점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류세라는 규정도 제국처럼 전지구라는 맥락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인류라는 관념을 상정한

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하나의 인류는 없다. 계급, 계층, 젠더, 나아가 이주민과 정주민의 위계까지 포함하여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듯 다중(multitude)으로서의 인민이 존재한다. ‘인류’세라는 표현이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주체를 강조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확히 ‘자본’세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결코 본질화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로 상정되는 인류의 공통 감각(common sense)을 흐트러 놓는 것이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전략이 될 것이다. 하나로 상정되는 것 안에 존재하는 다른 감각들을 살피고, 그 감각의 분배 자체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두의 위기라고 불리는 지금의 글로벌 팬데믹도 모두에게 다르게 감각된다. 누군가에게는 몸을 누일 공간 자체가 사라져 떠돌이가 되어야 하는 일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단지 업무가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정도의 일이다. 글로벌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이다.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미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 기후 난민이 되어버렸다. 지구에서의 모빌리티와 이주는 이렇게 복잡한 불일치의 속에 있다.

네일은 이주라는 주제를 철학적으로 사유하며 면밀히 분석해내기도 한다. 그는 『경계의 이론 *Theory of the Border*』(2016)에서 “우리는 경계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지구화가 이야기되지만 역설적으로 국경을 물리적으로 막는 장벽은 과거보다 더 늘

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낸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당시의 국경 간 장벽보다 오늘날의 장벽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네이션과 자본의 이상한 방식의 결합을 살펴볼 수 있다. 자본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이민자들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 이민자들을 통해 국가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민자를 타자화하여 배척하는 우익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다. 네이션은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정치적 세력들을 활용한다.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자화된 이민자들에게 투사하여 정치적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본과 네이션은 이민자들을 불법화하는 전략을 개발했다. 그들은 이민자 불법화를 하나의 산업적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자본-네이션은 이민자를 불법화하면서 동시에 받아들인다. 그들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니 사실 이민자들을 원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제1세계에서 이민자 없는 경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이 없다면 경제는 붕괴한다. 그러나 네이션은 민족주의 우익과 결합하여 이주를 불법화하는 정치적 입장은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자본의 이민자 고용을 용인하여 불법 이민자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불법 이민자들은 임금도 더 적게 받고, 투표도 하지 못하고,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높은 강도의 착취가 가능하고, 그것은 곧 경제

적 이득으로 이어진다. 전지구적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착취 구조가 여기에 있다.

또한, 이주의 불법화는 이주의 과정 자체를 위협한 것으로 만든다. 아직도 이주 과정에서 죽거나 사라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쿠바의 예술가 타냐 브루게라(Tania Bruguera)는 런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의 터바인 홀(Turbine Hall) 커미션 작업에서 이주 과정에서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를 관객들의 몸에 도장으로 찍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필자가 전시에 방문했을 때 찍혔던 숫자는 10148451로 무려 여덟 자리 숫자였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는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실종된 이주자 프로젝트’(Missing Migrants Project)와 연동되어 매일 갱신되고 있었다.

한국도 이주 문제에 예외가 될 순 없다. 오히려 단일민족 신화까지 더해져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논쟁이 촉발되었다.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부터, 종교 혐오와 젠더 문제에서의 충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네이션과 그 내부의 구시대적 민족주의 체제는 아직도 너무 공고하게 남아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입국할 때에도, 정부가 비판 여론을 의식하여 그들을 난민으로 부르지 못하고 “협력자”, “기여자” 등으로 부른 것은, 이러한 조건을 잘 보여준다. 문

제는 미술계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의 비영리 전시장에서는 왜 이주민이나 외국인의 전시를 보기 어려울까? 예술 창작 지원 기금 공고를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의 결격 사유 1번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이다. 그래도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수용되면서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 예술인복지법 상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혹은, “(국적, 나이, 경력 제한 없음) 단, 팀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한정” 같은 조건이 붙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 모빌리티를 담론적 차원에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이주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실질적인 모빌리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이주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가능성을 가진다. 위에서 살펴본 제국이라는 규정의 핵심은, 자본주의 체제의 바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체제의 바깥에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다른 것이 솟아오르게 해야 한다. 복잡미묘한 이주의 힘이 바로 그런 틈새를 만들어낸다. 더 많은 분야에서 이주자들과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윤리적이거나 도의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돕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를 통해 안쪽에 출몰하는 바깥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Thomas Nail, *Theory of the B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Thomas Nail, *Lucretius I: An Ontology of Mo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8.

Thomas Nail,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Thomas Nail at the Artslink Assembly 2019’ [web pag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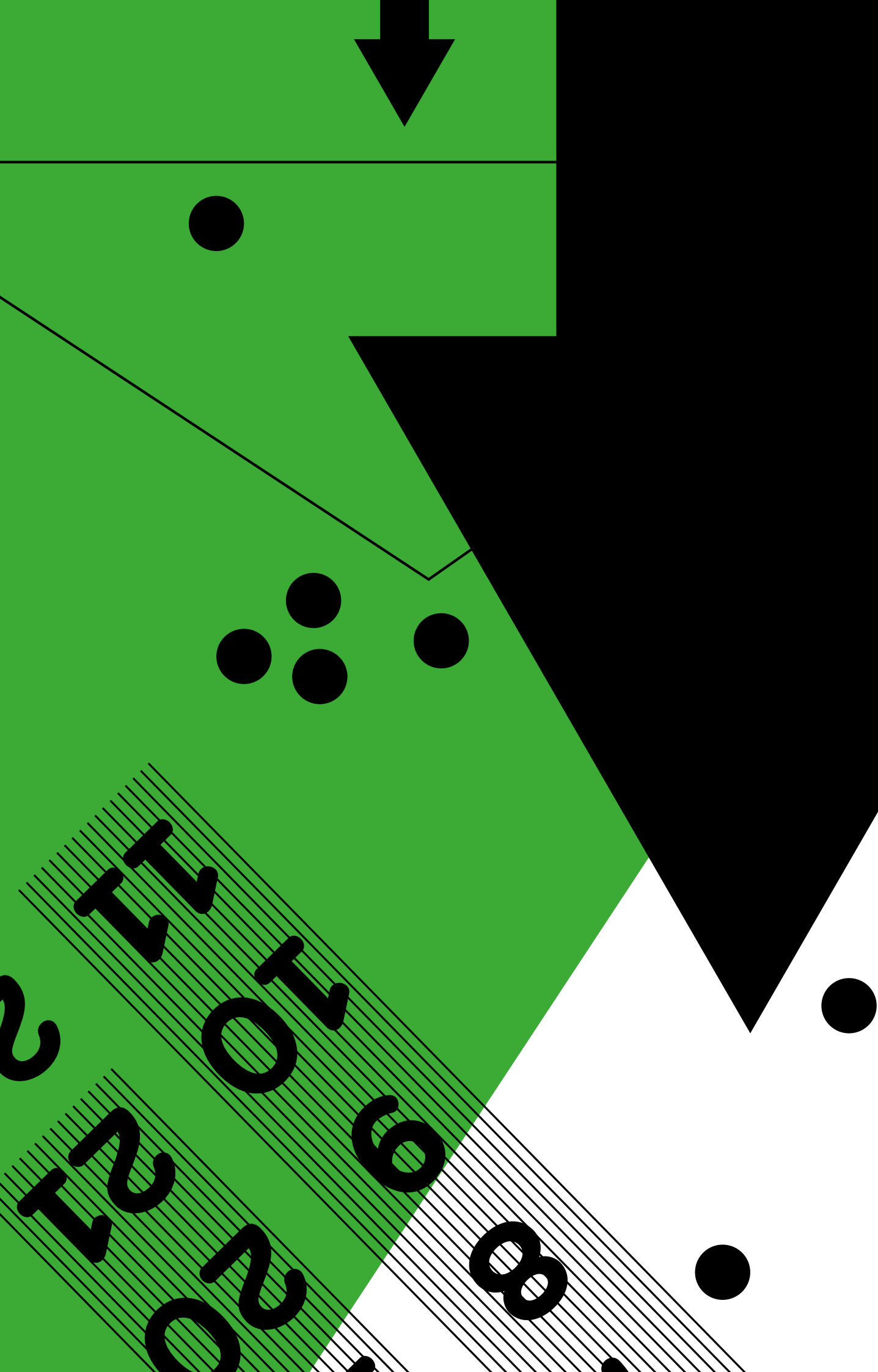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Ne4HbBYkp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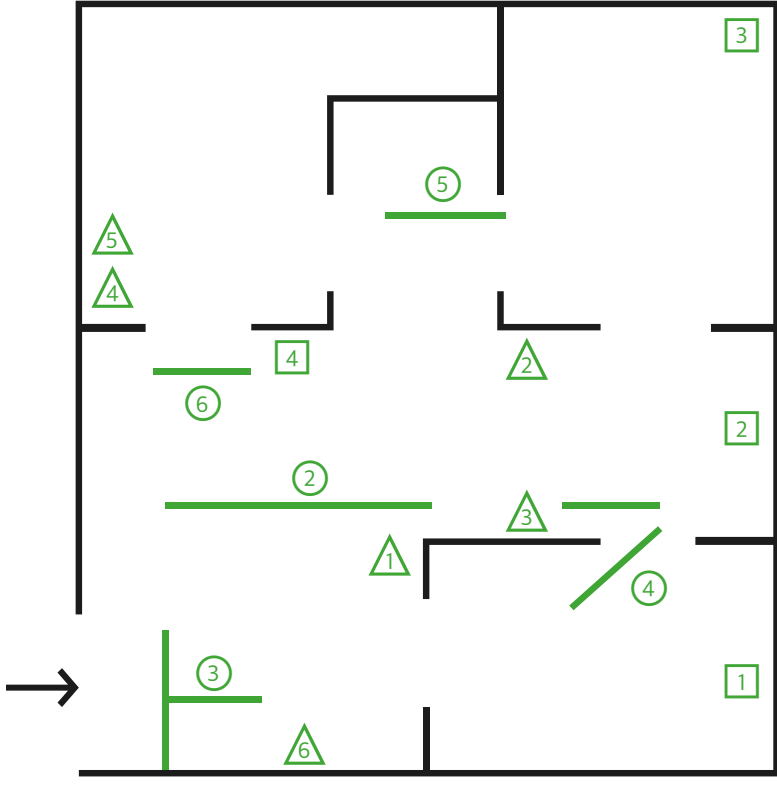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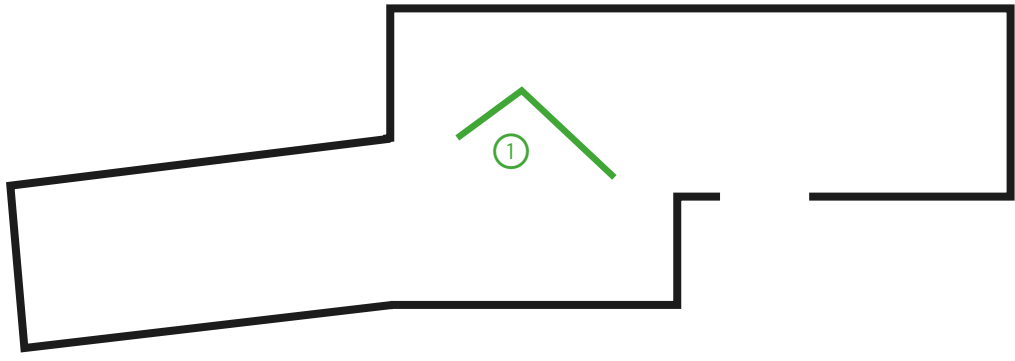
Antonio Negri & Michael Hardt,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마이클 하트 & 안토니오 네그리, 『제국』,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John Urry, *Mobilities*, Polity, 2007.

존 어리, 『모빌리티』, 강현수, 이희상 옮김, 아카넷, 2014.





- [1] 국동완, <거리>, 2020, 캔버스에 아크릴, 270 x 90cm
- [2] 국동완, <발생>, 2020, 종이에 흑연, 6 x 3cm
- [3] 국동완, <2020>, 캔버스에 아크릴, 90 x 270cm
- [4] 국동완, <집단>, 2020, 종이에 흑연, 6 x 3cm

- △ 김익현, <42,000 피트>,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1분 10초, 음악: 박다함, 경기도미술관 제작 지원 작품
- △△ 김익현, <사진/소포/메세지/알림/첨부 999kgo8@df, 2021/08/30 14:51:28>, 2021, 사진,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41.5 x 60cm
- △△ 김익현, <사진/소포/메세지/알림/첨부 jaoh2, 2021/08/30 04:12:38>, 2021, 사진,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41.5 x 60cm

- ① 허연화, <없는 방향을 가리키는 벽>, 2021, 혼합매체, 가변크기
- ② 허연화, <8시에 기상하여 출근하는 벽>, 2021, 합판, 포맥스에 인쇄, 켈지에 인쇄, 220(h) x 393 x 148cm
- ③ 허연화, <마스크를 쓰고 시속 '0km'로 달려가는 벽>, 2021, 혼합매체, 가변크기
- ④ 허연화, <마스크를 쓰고 시속 '0km'로 달려가는 벽>, 2021, 혼합매체, 가변크기
- ⑤ 허연화, <마스크를 쓰고 시속 '0km'로 달려가는 벽>, 2021, 혼합매체, 가변크기
- ⑥ 허연화, <마스크를 쓰고 시속 '0km'로 달려가는 벽>, 2021, 혼합매체, 가변크기

국동완

Dongwan K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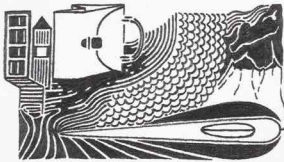
56

드로잉, 페인팅, 조각, 책 작업을 통해 무의식과 무의식에 접근하는 과정을 다룬다. 2007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꿈 아카이브 작업은 자신과 꿈의 관계를 언어와 기억의 자의적 관계에 빚대어 책과 조각의 특성에 녹여낸다. '자유연상'을 활용하는 드로잉 '회광반조回光返照'는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도구이며, 작가는 이렇게 건져올린 무의식을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으로 드로잉을 수백 배 확대하는 회화 시리즈를 전개한다. 꿈을 다루면서 단련된 시선을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사회 현상으로 옮기며 개인과 사회의 조형적 접점에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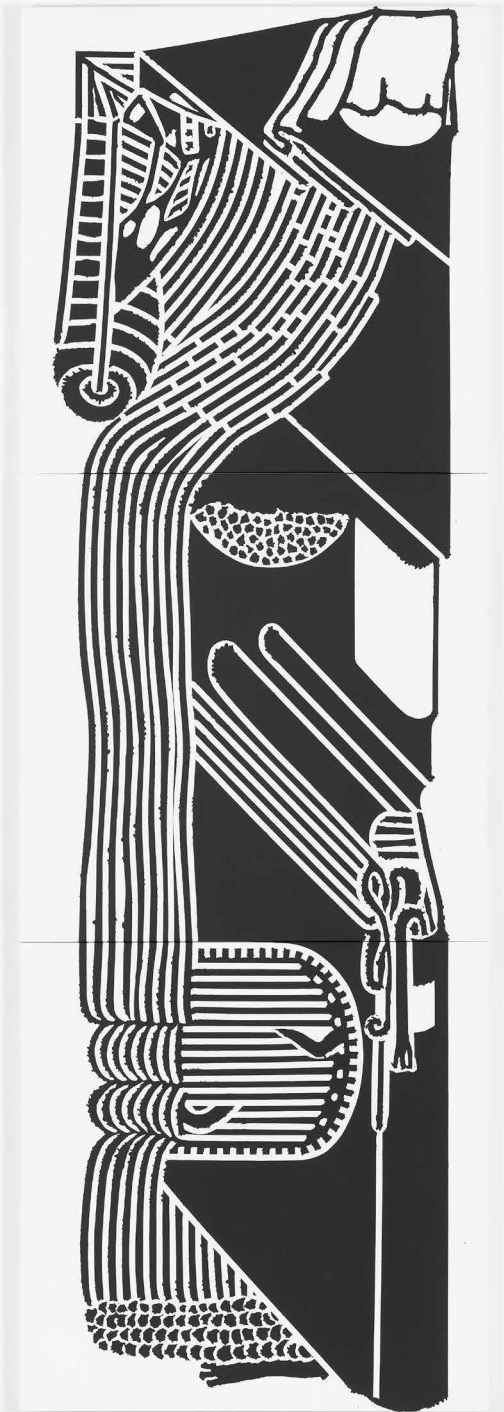
집단
2020, 종이에 흑연, 6 x 3cm

Group
2020, graphite on paper, 6 x 3cm



발생
2020, 종이에 흑연, 6 x 3cm

Outbreak
2020, graphite on paper, 6 x 3cm



거리

2020, 캔버스에 아크릴, 90 x 270cm

Distance

2020, acrylic on canvas, 90 x 270cm



2020
2020, 캔버스에 아크릴, 270 x 90cm

2020
2020, acrylic on canvas, 270 x 90cm

59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반복되던, 집에 머물러달라는 권고이자 명령을 곱씹는다. 각종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팬데믹과 연관된 제한적 단어들을 꼼꼼이 고민하고 지각하던 작가는 그 감각을 화면에 펼쳐낸다.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움직이는 손이 얽혀 탄생한 작은 드로잉과 그것을 900배로 확대하여 '다시' 그린 회화는 시대를 기억하는 작가의 태도이자 기록이다.

김익현

Ikhyun Gim

60

실재하는 것과 보이는 것,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시차(視差, parallax)를 연구하고 사진과 글쓰기를 통해 추측한다. 그는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진 세계와 해저 광케이블, 나노미터의 세계와 글로벌 가치사슬 같은 것이 만드는 연결과 단절을 기억, 상상, 관찰한다. 개인전 《머리 비행》(경기도 미술관, 2020), 단체전 SeMA비엔날레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서울서림미술관, 2016), 《A Snowflake》(국제갤러리, 2017) 등에 참여했다.

2018 서울사진축제 특별전 《Walking, Jumping, Speaking, Writing》(SeMA창고, 2018), 《더 스크랩》(2016~2019) 등 사진 전시와 이벤트를 기획/공동기획했다.



42,000 피트
2020,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1분 10초,
경기도미술관 제작 지원 작품

42,000ft
2020,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21min 10sec,
This work is made possible through the support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작가는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서울 일대의 인터넷망이 마비됐던 날을 떠올린다. 디지털 네트워크 세계의 견고함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던 순간은 팬데믹으로 정지된 오늘과 닮아있다. 이에 작가는 과연 우리의 이동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한다. 저가 항공 비행기의 운항 반복이 가능했던 이유, 매일 핸드폰으로 전송되는 택배 도착 사진의 이면 등 나의 이동과 그 시간을 단축/연장했던 시스템들을 감각하고 탐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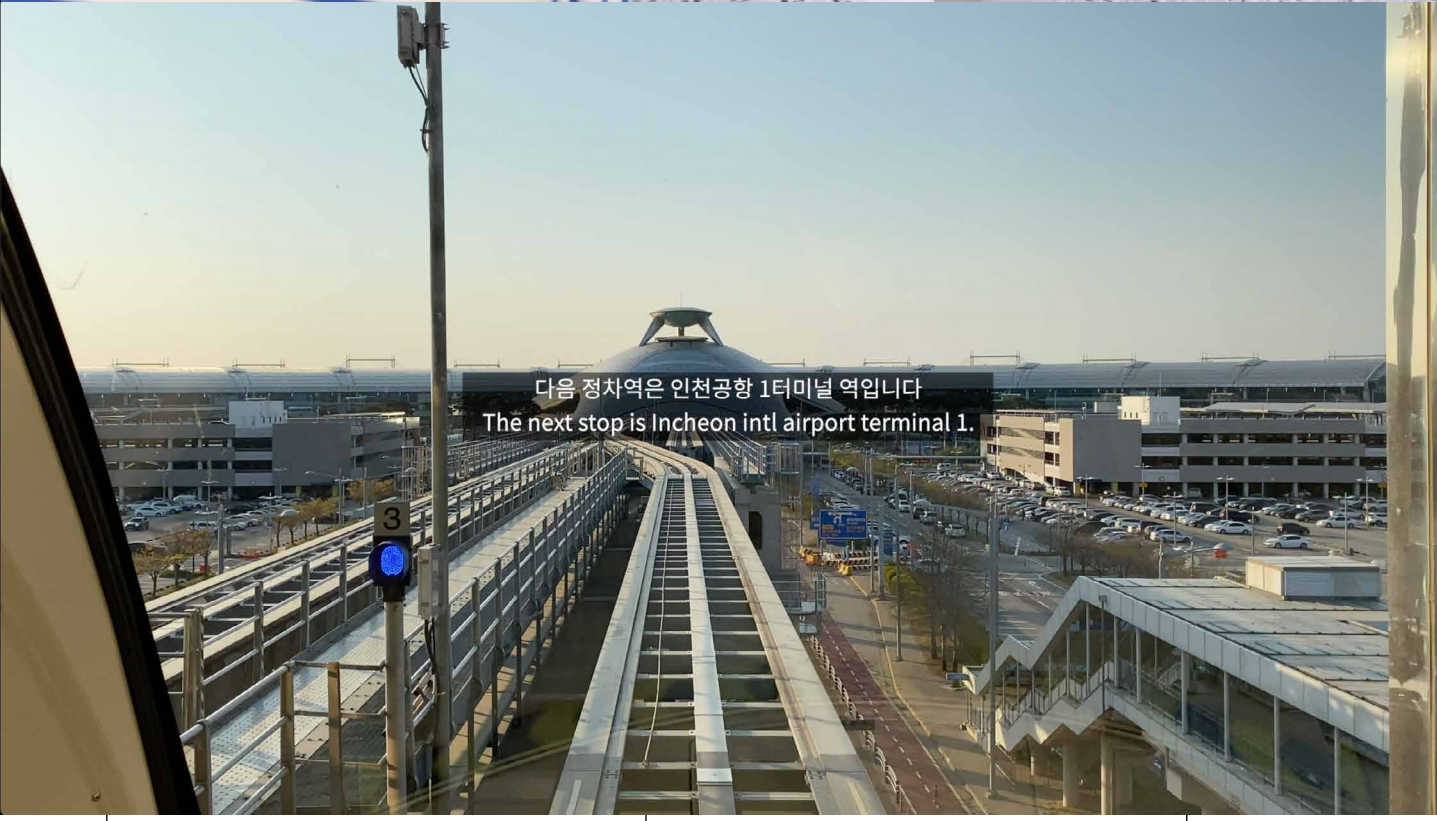
김익현 Ikhyun Gim

61



그래서 여기를 누르란 얘기죠? 손님 말로는
ほんで、これをなぶれ言うわけやね、お客さん曰く。

네 맞아요, 26
はい、そうですね、26。



다음 정차역은 인천공항 1터미널 역입니다
The next stop is Incheon intl airport terminal 1.

음악: 박다함
Music: Daham Park

수록곡 Tracks

Dream

Sampled: ABBA - I Have A Dream

Memory

Sampled: Andrew Lloyd Webber - Memory

Movement

Sampled: W.A. Mozart - Serenade For Winds;
K 361; 3rd Movement

Time

Sampled: Maksim Mrvica - Somewhere in Time



사진/소포/메세지/알림/첨부
999kgo8@df, 2021/08/30 14:51:28
2021, 사진,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41.5 x 60cm



image/parcel/message/push/attach
999kgo8@df, 2021/08/30 14:51:28
2021, photographs, inkjet print on paper,
41.5 x 60cm

63



사진/소포/메세지/알림/첨부
jaoh2, 2021/08/30 04:12:38
2021, 사진,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41.5 x 60cm



image/parcel/message/push/attach
jaoh2, 2021/08/30 04:12:38
2021, photographs, inkjet print on paper,
41.5 x 60cm

64

65



사진/소포/메세지/알림/첨부
jaoh2, 2021/08/30 04:12:38
2021, 사진, 종이에 잉크젯 프린트,
41.5 x 60cm

image/parcel/message/push/attach
jaoh2, 2021/08/30 04:12:38
2021, photographs, inkjet print on paper,
41.5 x 60cm

허연화

Yeonhwa

Hur

66

일상에서 마주하는 풍경들을 만들며 한정된 공간의 크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물리적 한계가 해소된 환경에서의 물과 같은 유동적인 물질과 신체에 대한 관심사를 입체와 평면으로 시각화한다. 개인전 《Floating people》(탈영역우정국, 2021)을 개최하였고, 《The Snow Globe》(휘슬, 2021), 《흐르는 시간 그리고》(신세계 갤러리, 2021) 등의 전시와 행사에 참여했다.



8시에 기상하여 출근하는 벽
2021, 합판, 포맥스에 인쇄,
켈지에 인쇄, 220(h) x 393 x 148cm

A wall that wakes up at 8:00 to work
2021, plywood, print on Formax,
print on PVC paper, 220(h) x 393 x 148cm

67

물리적 이동이 차단된 현실에서 온라인 네트워킹은 무한하며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상 주어진 알고리즘에 따른 이동이기도 하다. 온오프라인의 교류를 형상화한 작가의 설치와 조각, 펜스는 인미공 2층에서 관객의 시야를 열거나/차단하는 동선의 역할을 한다. 각 조각 작품과 그 요소들은 서로를 잇거나 배제하면서 다른 작가의 작품을 관객과 연결하기도, 에워싸기도 하면서 관객이 전 시장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든다.



플리마켓, 호소하는 광장, 디저트와 함께 산책하는 벽
 2021, 메쉬펜스, 펜스망, 플라스틱 점토, 석고,
 페트지, 천, 캔버스, 다이어리, 아크릴,
 스텐 체인, 가변크기

*Flea market, appealing squares, walking wall
 with dessert*

2021, mesh fence, fence net, plastic clay,
 plaster, PET paper, cloth, canvas, diary, acrylic,
 stainless steel chain, variable size

68



초록 덩어리

2020, 석고, 플라스틱 점토, 실리콘, 천,
20(h) x 32 x 29cm

Green lumps

2020, plaster, plastic clay, silicone, cloth,
20(h) x 32 x 29cm

69



흐린 얼굴

2021, 시바틀, 실리콘, 스텐봉,
17(h) x 18 x 37cm

Blur face

2021, resin, silicon, stainless stick,
17(h) x 18 x 37cm

70



구슬기관

2021, 석고, 실리콘, 비즈, 플라스틱 점토,
17 x 33 x 33cm

Bead organ

2021, plaster, silicone, beads, plastic clay,
17 x 33 x 33cm

월간 인미공 9월호

이동하는 세계: 단축과 연장

강민형
국동완
권태현
김익현
우춘희
허연화

인미공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89
02-760-4721~3

ias.info@arko.or.kr

  insaartspace

운영 및 관람 시간
화요일-토요일 11am-7pm
매주 목요일 2시-4시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관람이 어렵습니다.

인미공(구 인사미술공간)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아르코미술관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신진 예술인의 창작 연구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미술관장
임근혜

미술관운영부장
최혜주

큐레이터
김미정

코디네이터
전솔아

홍보 및 도움
이숙진

인턴
최윤지

그래픽디자인
김유나

공간디자인
홍민희

미디어설치
올미디어

전경 사진
이의록

텍스트 그래픽 제작
홍한나

타이틀 번역
이혜림